

영아반 안전교육

담당교사	원 장

일 시	9월 1주	대 상	영아 [만 0세 ~ 만 2세]
활 동 명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기저귀(팬티)는 왜 입을까요?		
교육목표	- 기저귀(팬티)가 소중한 곳을 보호한다는 것을 안다. - 기저귀(팬티)를 탐색하며 사용법을 경험한다.		
표준보육과정 관련요소	-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안전한 상황에서 놀이하고 생활한다. -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준 비 물	그림 자료, 기저귀(팬티)		
반 이름	교육내용평가		사진
솔빛반 (만 0세)	그림 자료를 제시하고 관심을 보이는 영아에게 기저귀(팬티)를 보여주었고, 손으로 만져보며 기저귀를 탐색하였다. 우리 몸의 소중한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저귀(팬티)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일과 중 기저귀를 갈아입어야 할 경우에도 기저귀가 우리 몸을 보호한다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해 주었다.		
하랑반 (만 1세)	기저귀와 팬티를 입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기저귀와 팬티가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고,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하도록 소중한 부분을 지켜주는 옷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관심을 보였다. 만 1세 아동의 발달 특성상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옷을 입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언어화해 주면서 기초적인 안전 개념을 형성할 수 있었다. 교육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내 몸은 소중하다'는 인식을 조금씩 확장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줄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		
푸름반 (만 2세)	'기저귀는 왜 입을까요?' 그림자료를 제공해주었더니 관심을 보이는 영아와 함께 그림자료를 보면서 내 몸의 소중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주었다. 영아와 함께 신체 인형의 인형의 팬티를 입혀보면서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팬티를 입어서 소중한 부분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며 손으로 만지면 나쁜 세균이 들어가 아파질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다. 그림자료와 인형에 흥미가 없는 영아가 있어 일상생활 중 쉬를 하고 난후 옷을 바르게 입혀줌으로써 지속적으로 알려주었다.		

영아반 안전교육

담당교사	원 장

일 시	9월 2주	대 상	영아 [만 0세 ~ 만 2세]
활 동 명	[실중·유괴예방] 사람이 없는 곳에 가지 않아요.		
교육목표	- 사람이 없는 곳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 인식한다. -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밝은 곳으로 다녀야 함을 안다.		
표준보육과정 관련요소	-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 의사소통 >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 주변의 그림과 상징에 관심을 가진다.		
준 비 물	안전 동화(그림책)		
반 이름	교육내용평가	사진	
솔빛반 (만 0세)	안전 동화를 제공하고 관심을 보이는 영아와 바깥 놀이를 나갈 때나 원 주변을 산책할 때는 밝고 사람이 많은 길로 다녀야 함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동네 산책 시 좁고 어두운 길과 넓고 사람이 많이 길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하랑반 (만 1세)	‘사람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아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놀이터에서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 공간을 탐색하며, 선생님이나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해 주고 지켜주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었다. 만 1세 아동들이라 개념적 이해는 제한적이었지만, 낯선 곳에 혼자 가지 않고 익숙한 어른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경험을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다. 활동 중 아동들은 교사의 부름에 반응하며 다시 모이는 과정을 통해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이 일상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푸름반 (만 2세)	‘사람이 없는 곳에 가지 않아요’ 안전 동화를 제공해주었더니 관심을 보이는 영아와 함께 그림책을 살펴보았다. 그림책을 보면서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 밝은 곳으로 다녀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음을 알려주면서 밖에 나갈 때에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과 함께 다녀야 함을 알려주었다. 그림책에 관심이 없는 영아에게 일상생활 중 등하원, 놀이터 갈 때 부모님, 선생님, 친구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려주었다.		

영아반 안전교육

담당교사	원 장

일 시	9월 3주	대 상	영아 [만 0세 ~ 만 2세]
활 동 명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어린이 약도 함부로 먹지 않아요		
교육목표	- 친구의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다.		
표준보육과정 관련요소	- 기본생활 > 안전하게 생활하기 > 위험하다는 말에 주의한다. 의사소통 > 듣기와 말하기 > 표정, 몸짓, 말과 주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듣는다.		
준 비 물	그림 자료		
반 이름	교육내용평가		사진
솔빛반 (만 0세)	약을 먹고 있는 그림을 제시하고 관심을 보이는 영아와 아픈 곳에 따라 먹는 약이 다르며 색깔이 예쁘고 맛있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어린이 약도 함부로 먹으면 우리 몸이 더 아플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하랑반 (만 1세)	아이들이 집에서 가져온 약통과 가정에서 흔히 두는 상비약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약은 아플 때 어른이 주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임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었다. 만 1세 아동들은 약통과 그림 자료에 관심을 보이며 만져보거나 가리키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교사가 “약은 혼자 먹으면 안 돼”라는 말을 반복할 때 자연스럽게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은 스스로 약의 위험성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물건과 그림 자료를 활용한 경험을 통해 약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안전하게 먹는 것이라는 기초 인식을 형성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약은 어른과 함께 먹는다’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푸름반 (만 2세)	혼자서 약을 먹으려고 하는 그림자료를 제공해주었더니 관심을 보이는 영아와 함께 약은 물약이랑 가루약의 양을 맞춰서 잘 흔들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 엄마, 아빠가 주는 약만 먹어야 함을 알려주었다. 또한 아프지 않을 때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친구의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약이 맛있다고 약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면서 약을 먹을 때에는 정해진 용법을 지켜서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주는 약만 먹어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		

영아반 안전교육

담당교사	원 장

일 시	9월 4주	대 상	영아 [만 0세 ~ 만 2세]
활 동 명	[교통안전] 킥보드, 자전거 안전하게 즐기기		
교육목표	- 바퀴 달린 것을 탈 때는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함을 안다. - 보호장비의 바른 착용법에 대해 알아본다.		
표준보육과정 관련요소	- 신체운동·건강>안전하게 생활하기>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 사회관계>더불어 생활하기>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준 비 물	안전 동화(그림책), 안전모, 무릎(팔꿈치) 보호대		
반 이름	교육내용평가		사진
솔빛반 (만 0세)	관심을 보이는 영아와 안전 그림책을 보여주며 킥보드나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 보호장비를 착용하면 넘어져도 조금만 다칠 수 있으므로 킥보드나 자전거를 더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주었고, 가정에서도 보호장비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하랑반 (만 1세)	안전교육 동화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장난감 킥보드와 자전거를 놀이하며 안전하게 타는 방법과 주변을 살피는 행동을 경험하였다. 만 1세 아동들은 동화 속 상황에 흥미를 보이며 교사의 안내에 따라 보호자나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은 스스로 교통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동화를 통한 이야기 경험과 놀이를 결합하여 ‘안전하게 함께 타기’라는 기본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반복적인 지도와 안전한 놀이 환경 제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푸름반 (만 2세)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킥보드 타는 그림자료를 보고 있는 영아와 함께 자전거, 킥보드를 타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호장비 없이 자전거, 킥보드를 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서 자전거, 킥보드를 탈 때에는 안전모자, 팔꿈치, 무릎보호대하고 타면 다치치 않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자전거, 킥보드를 탈때에는 공원, 놀이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부모님과 타야 함을 알려주었다.		